

“여성 특혜 단호히 배격...사업 스트레스 봉사로 풀어요”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이미진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분명히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절반씩 존재한다. 남여가 신체적 또는 생체적 이유로 인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전근대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잘 조화되었을 때 나오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남성만이 특정한 ‘남성의 영역’이 서서히 그 빗장을 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접근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의 생각이 세상을 지배했고, 특히 신속한 성장과 강한 추진력이 요구되었던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이러한 틀을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속에서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의 희생과 교육열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1971년)는 우리나라(1948년)보다도 늦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1970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소수 민족, 다른 인종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광주시장, 전남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여성 고위직 비율은 절반은커녕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장·차관, 국회의

재산 늘리기보다 신뢰와 신용 쌓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것에 자부심 여성 기업들 평가받을 기회라도 동등하게 얻는다면 더 성장할 것

원, 대기업 CEO 등 정치·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수의 선택 받은 여성만이 간신히 고위직에 올라서 있다. 동등한 출발점, 여건, 기회 등을 가질 수 없는 실정에 육아·가사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마저 회피하면서 국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방 이후 70여 년만에, 다른 선진국들이 수 백년 걸렸던 그 과정을 엄청난 속도로 극복해 같은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들자마자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잠시 뒷전으로 미뤄왔던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과 국가불균형 발전, 부와 직업의 대물림과 고착화된 양극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출산에 대한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꼴찌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힘들며, 이것이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다는 의미다. 아이슬란드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27위), 튀르키예(28위)마저 우리나라의 앞에 있다. 성별 임금 격차, 관리직급의 여성 비율, 이사회 참여 여성 비율, 의회 진출 여성 등 10개의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또는 하위권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참담한 여건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자수성가한 여성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의 다이앤 핸드릭스(77)다. 농장주의 딸로 태어나 자신 21조원을 일궈냈는데, 포브스 선정 미국의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11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건축자재회사 ‘ABC서플라이’를 이끌며, 공장이 있는 지역에 기부와 공헌에 앞장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과감하게 경쟁사들을 인수하는 등 사업가 기질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57)가 있다. 지난해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명단에 올랐다. 1981년 광주에서 태어나 동신여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2005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공채로 입사해 17년만인 2022년 3월 한국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첫 여성 CEO이자 최연소

CEO가 되었다. 광주의 여성 기업들을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제10대 회장 이미진 미진 김미진 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정상·정의·정직’을 자신의 모토로 하고 있다.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업을 운영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여성의 기업 운영 원칙은 남성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한국여성경제인 광주지회는 지난 1999년 창립되었으며, 광주·전남 일부지역의 여성 기업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2월 경선을 거쳐 당선되었다. 130명에 불과했던 가입 회원을 2년만에 270명까지 늘려 전국 19개 지회 가운데 두 번째 규모로 키우고, 대통령상 수상 기업도 전국 4개 가운데 2개를 휩쓰는 등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배려에 익숙한 것을 비판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그녀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봉사를 시작해 30년간 계속하고 있다. 봉사·기부·기여를 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부자’가 기업 경영에 나선 이유라는 이 회장에게 여성 경제인으로서의 경영 방침, 성과, 바람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GGM 특수성 감안 판정 내렸어야”...아쉬움 남는 전남지노위 판단

본보 보도 이후 해명 적극 나서

심판위 공익위원 3명중 2명 외지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광주 노·사·민·정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대신 노사상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특수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GGM 노동자의 구제신청 사건 심판과 관련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5일 9면)과 관련 전남지노위 측은 15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판위원회의 참여 위원 가운데 노·사측 위원 각각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세 명 중 두 명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외지인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사실상 ‘무노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참여로 노조가 출범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자칫 GGM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남지노위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역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GGM은 약소한 35만대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해외 수출에 나서는데 등 기업 성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남지노위의 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남지노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GGM 사건의 경우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심판 과정에서 화해를 주선했으나, 노사간의 견해 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법리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에서는 당시 공익위

원으로는 변호사 1명과 대학교수 출신 2명이 추첨을 통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타지역(전북)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조와 다른 GGM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지역 내 가치 등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익위원들의 경우 심판 1주일 전 내부 정보망을 통해 사건 내용 조사가 가능하지만 지역 사정까지 감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GM 관계자는 “GGM의 경우 직원들이 이미 입사 전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서약하고 노사상생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협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남지노위는 GGM이 회사의 지시를 어긴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사내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판 글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행복은 습관이다’...광주경총 금요초찬포럼

장경동 목사 초청 강연

“암은 죽어서도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대 교수로 활동 중인 장경동 목사가 지난 15일 오전 제1668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이하 광주경총) 금요초찬포럼에서 ‘행복은 습관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장 목사는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행복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장 목사는 “인간은 ‘금수’, ‘인격자’, ‘성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

다쁘린 상황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를 구분짓는다”고 말했다. 바둑으로 치면 ‘떡수’, ‘묘수’, ‘신의한수’ 정도 되는 것인데, 모든 성인들은 인격자이자 묘수에 비유할 수 있고, 부활을 실현한 예수만이 신의한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긍정적인 사고가 부부관계와 자신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장 목사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웃음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웃음은 암을 극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겨울 정기세일

120여 유명 브랜드 참여

모피·주방용품 등 할인 판매

광주신세계는 오는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할인 행사인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세일은 광주신세계 본관과 플레이 스팟에 입점한 12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 가장 할인폭이 큰 브랜드는 ‘진도모피’, ‘동우모피’, ‘박성용 모피’로 쌀쌀한 겨울철을 위한 모피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어 ‘세사’, ‘구포컬렉션’, ‘클라르하임’ 등 홈패션 브랜드들과 ‘바렌’, ‘WMF’, ‘놋담’, ‘테팔’ 등 주방용품 브랜드에서는 기존 대비 40% 이상 할인가에 유명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메트로시타’, ‘다이아미’ 등 주얼리 브랜드와 ‘닥스’, ‘슈퍼마보나’ 등 구두 브랜드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듀공’, ‘레노마 카운테스마리’ 등 셔츠 브랜드와 ‘펠리체조수니’, ‘엘세’ 등 여성 브랜드,



‘루이까뜨’, ‘더메이커스랩’, ‘비비안’ 등 브랜드의 스카프·아우터 제품들은 품목별로 20% 할인을 적용한다. 연말 아이와 가족을 위한 선물로 적합한 ‘압소바’, ‘헤지스키즈’ 등 아동 브랜드와 ‘윤현공’, ‘알레르망’, ‘코지네스트’, ‘로라에솔리’ 등 침구 브랜드 등 인기 브랜드들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밖에 ‘마렘’, ‘퀵클라인 진’, ‘갤럭시 신사’ 등 인기 의류 브랜드와 ‘발뮤다’, ‘스타우브’ 등 주방가전 브랜드 등에서도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사우디·괌 신재생 발전 사업 연속 수주

1조 1000억원 해외 매출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괌에서 신재생 발전 사업 2개를 연속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17일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 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사업’의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200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향후 25년 동안 생산된 전력 전량을 SPPC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370만여개 설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기준 5400여억원의 해외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사업주인 Masda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추가적인 재생 사업 개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또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1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84MW 4시간용(326MWh)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를 연계한 발

전을 건설해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괌 전력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동서발전, 삼성물산, Team Kore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괌 전력청이 주관한 국제 경쟁입찰에서 국내 사업주 지분 100%로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기준 해외 매출으로 6000여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공사를 전담한 삼성물산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수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4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1	17	19	40	43	2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26,476,353	1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331,574	72
3	5개 숫자일치					1,528,672	3,030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146
5	3개 숫자일치					5,000	2,677,017

한전KPS ‘인권경영 인증’ 4년 연속 획득

한전KPS가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HRMS)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공식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인권경영 체계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한전KPS의 인권경영 관리 방침과 목표, 실행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4년 연속 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심사에서 한전KPS는 지난 2019년 인권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뒤 ▲노·사·감 공동 윤리·인권경영 의지 선언 ▲외부 고충상담센터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시행 ▲사회사 인권경영 운영 지원체계 확

화 등 지속적인 인권경영 고도화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한전KPS 최고경영진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우수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이 기관의 인권경영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등 내부 직원부터 고객, 이해관계자까지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